

## 미야타키(宮滝) 유적

미야타키 유적은 일찍이 알려져 있었고 메이지(明治)부터 다이쇼(大正)에는 지역 향토사학자들이 요시노리큐(吉野離宮)설을 제기했다. 쇼와(昭和) 4년(1929) 9월 나라현 사적조사회에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설파되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쇼와 5년(1930) 10월부터 쇼와 13년(1938)에 걸쳐서 제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에서는 나라 시대의 기와나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고 넓은 범위에서 부석(敷石)유구가 발견되어 요시노리큐의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국도보다 북쪽의 높은 곳에서 사이메이(斉明) 조(朝)에서 지토(持統) 조 무렵의 원지(園池)가, 요시노가와(吉野川) 강에 접한 평지에서 쇼무(聖武) 조 무렵의 건물군 및 부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과로 미야타키 유적은 사이메이 천황이 조영하였고 지토 천황이 빈번하게 행차했던 요시노리큐(吉野宮)이며 또 쇼무 천황의 요시노리큐였다고 생각된다. 2017년도 조사에서는 주위에 부석이 깔려 있고 9칸×5칸의 정전(正殿)급의 대형건물이 확인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